

**주간농업 농촌동향 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**

**2011.07.11 미래정책연구실**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5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출 사상 최대치 기록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**□ 주요 내용**

○ '11년 농림수산물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.2% 증가한 344억불로 사상 최대치 기록

- 농림수산식품의 특성 상 수확기인 하반기 수출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'08년 하반기에 「'12년 농림수산물 100억불 달성 대책」을 수립한 이후 최초의 연도별 목표 달성이 기대

○ 상반기 수출은 부류별로 고른 증가세를 나타냈고, 품목별로는 주력 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

※ 전체 33.2% : 농산물(34.0%), 축산물(29.4), 임산물(51.3), 수산물(30.1)

○ 상반기 수출액 5천만불 이상 품목이 전년도 7개에서 금년도 12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 규모화에 대한 전망을 밝게함.

- (인삼) 인삼공사의 중국, 일본 현지법인 확충으로 공세적 마케팅 전개가 지속되며 중화권, 일본 각각 184.3%, 9.8% 수출이 증가
- (음료) 건강음료로 해외 인지도가 높은 알로에음료의 꾸준한 수출증가와 함께 일본 지진피해로 인한 구호품 성격의 일본 생수 수출이 급증하며 전년 대비 80.4% 증가한 92.3백만불 수출
- (제3맥주) 낮은 주세로 저가인 제3맥주는(99% 일본 수출) 일본의 경기 침체와 함께 수요가 지속 성장하였으며 지진피해 발생 후 외식소비가 줄어들며 가정용 소비 위주였던 제3맥주의 수출 증가 가속화
- (김) 지속적인 신상품 개발 및 마른김 식재료 공급확대 등을 통한 수출 창구 다변화 노력과 함께 일본 지진피해로 인한 현지 생산량 감소로 한국산 대체수요가 증가하며 전년 대비 58.5% 증가한 74.5백만불 수출

- (귤) 대만·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건조 귤 수요 증가 및 일본 지진피해에 따른 귤 주산지 피해로 한국산 냉동 귤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.2% 증가

<상반기 수출액 5천만불 이상 품목>

단위 : 천톤, 백만불, %

| 구분 | 품목    | 2010.1.1~6.30 |       | 품목    | 2011.1.1~6.30 |       | 전년동기대비 |      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|       | 물량            | 금액    |       | 물량            | 금액    | 물량     | 금액    |
| 1  | 귤     | 17.7          | 220.1 | 귤     | 21.1          | 250.9 | 19.2   | 14.0  |
| 2  | 참치    | 92.8          | 176.6 | 참치    | 80.2          | 190.2 | △13.6  | 7.8   |
| 3  | 자당    | 156.1         | 104.5 | 커피조제품 | 33.4          | 133.4 | 12.9   | 40.8  |
| 4  | 커피조제품 | 29.6          | 94.8  | 자당    | 159.3         | 132.6 | 2.1    | 26.9  |
| 5  | 라면    | 19.3          | 76.9  | 인삼    | 1.7           | 100.8 | 16.1   | 111.4 |
| 6  | 오징어   | 42.2          | 72.3  | 오징어   | 36.8          | 99.9  | △12.7  | 38.3  |
| 7  | 음료    | 63.9          | 51.2  | 라면    | 22.9          | 93.1  | 18.6   | 21.1  |
| 8  | 김치    | 15.1          | 48.0  | 음료    | 148.8         | 92.3  | 132.7  | 80.4  |
| 9  | 인삼    | 1.5           | 47.7  | 제3맥주  | 99.3          | 76.5  | 71.4   | 70.8  |
| 10 | 소주    | 31.9          | 47.1  | 김     | 6.3           | 74.5  | 45.5   | 58.5  |
| 11 | 김     | 4.3           | 47.0  | 귤     | 7.5           | 52.8  | 12.3   | 18.7  |
| 12 | 제3맥주  | 57.9          | 44.8  | 소주    | 31.7          | 50.1  | △0.7   | 6.4   |

○ 규모가 5천만불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반기 큰 성장세를 보이는 품목으로는 **막걸리, 미역, 고등어, 전복, 유자차** 등임.

- 특히, **막걸리** 수출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43%나 증가하며 **상반기 3천만불을 돌파**

※ 막걸리 수출 증가 요인 : i) 최대 시장인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게 맛과 포장을 현지화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(탄산·과실·검은콩) ii) 시설현대화 등 품질 및 위생수준 제고, iii) 프로모션 및 현지 주류업체와의 협력 강화

- (미역) 일본 지진 및 방사능 유출에 따른 현지 미역 산지피해로 한국산 미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전년 대비 135.4% 증가한 25.7백만불 수출

- (고등어) 주 어장인 연근해에서 내수용 대형고등어(500g 내외)보다 수출용 소형고등어 어획량이 증가하여 스리랑카(통조림용) 및 베트남(냉동 고등어)으로 수출 급증(전년 대비 186.5% 증가한 19.4백만불 수출)

- (전북) 일본 지진 발생으로 인한 현지 주산지 피해로 일본 및 대만으로 활전복 수출 증가 및 중화권 전북 가공품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5.2% 증가한 18.8백만불 수출
- (유지차)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내 중소도시로 수요 기반이 확대됨과 함께 일본 지진피해로 인한 일본 내 현지산 대체를 위한 한국산 수출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39.1% 증가한 17.9백만불 수출

○ 국가별로는 신흥국으로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

- 대만(67.9%), 중국(57.4), 아세안(54.4)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% 이상의 증가율 유지
- 올 초 감소세가 컸던 러시아 수출은 5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주요 수출국 모두 증가세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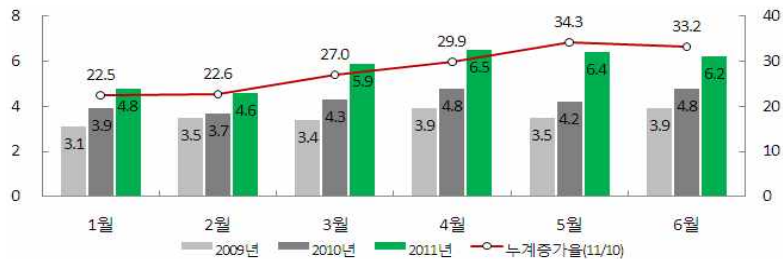
※ 대 러시아 수출증감률 : (1월) △7.0% → (2월) △10.4 → (3월) △9.6 → (4월) △8.3 → (5월) 2.7 → (6월) 5.7

<국가별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>

| 구분      | 일본      | 중국    | 미국    | 러시아   | 홍콩    | 대만    | 아세안   | EU   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금액(백만불) | 1,077.5 | 527.6 | 287.4 | 123.5 | 143.8 | 118.1 | 458.3 | 174.6 |
| 증감률(%)  | 29.4    | 57.4  | 16.7  | 5.7   | 24.7  | 67.9  | 54.4  | 11.4  |

○ 한편, 월간 수출 실적은 3개월 연속 6억불 선을 유지하며, 안정적 증가세를 나타냄.

<최근 3년 상반기 당월실적 추이>



**주간농업 농촌동향** **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**

※ 본 자료는 지난 7월 5일 농림수산물부에서 발표한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**□ 추진 배경**

○ 그동안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'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도입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'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,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

※ 정부의 1: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(30개 품목)의 현재 총 조성규모는 '10년 기준 약 97억(축산자조금 : 약 260억)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% 미만임.

○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의 제도적 한계

-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.

- 또한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파프리카, 백합, 감귤, 난, 참다래와 같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

○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재 한우, 양돈, 낙농 등 축산물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일반농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수산물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「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정할 계획임.

## □ 주요 내용

- (농수산자조금 등의 정의)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품질향상을 제고하는 등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되는 자금으로 규정
- (자조금 조성 여부 및 형태 결정 절차) **의무자조금**은 생산자의 요청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3분의2이상의 출석과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 의결시 생산자는 납부의 의무가 있음.
  - ※ **임의자조금**은 해당품목 생산자의 100분의 50이상의 서명을 받은 다음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며 생산자는 임의로 납부할 수 있음.
- (자조금의 거출대상 및 거출방법) 자조금의 거출대상을 농수산물 유통·가공·수출·수입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의무자조금의 경우 품목별 수납대행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.
- (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) 자조금의 관리·집행을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,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보조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하도록 함.
- (자조금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) 사업운용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.
- 한편, 동 법률안은 **8월중 관계부처 의견조회,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**
  - 법시행과 동시에 일부품목(감귤, 파프리카, 참다래, 백합, 난 등)에서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생산자단체 등과 의무자조금 거출대상, 수납기관, 거출금액기준 등에 대해 협의하여 의무자조금 도입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
- 이 법이 제정, 시행되면 농수산물에 의무자조금의 도입근거가 마련되어 무임승차자를 배제할 수 있고 생산자 등이 스스로 해당품목의 수급조절·시장개척·조사연구·소비촉진 등과 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이 활발해져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